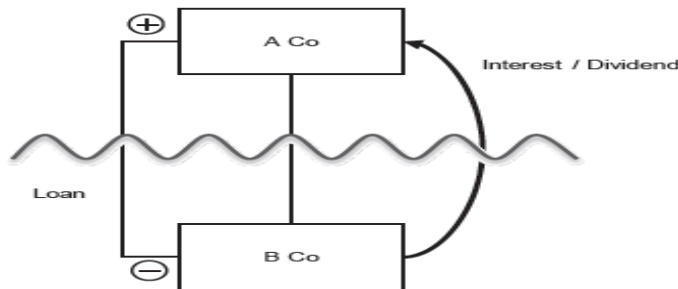


**예제 1)** 밑에 그림에서 A 국가 소재 A Co. 법인은 B 국가 소재 B Co. 법인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. A Co. 는 B Co.에게 일반 이율 토대, 특정 금액을 빌려준다. 이러한 상황에서, B 국가는 해당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. 반면, A 국가는 관련 금액을 자본으로 인식한다. 그리고, 이자는 B 국가에서 공제 가능 이자로 인식하고, A 국가에서는 배당금으로 인식하는데, A 국가에서는 배당금 지불 전 12 개월 이상 법인 주식 10% 초과 보유 경우, 면세 규정이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.



언급된 상황에서, BEPS 원칙 2에서는 혼성 (hibrido) 현상이 발생하므로, A Co.에게 배당 관련 면세를 적용하지 말라고 추천 (recomendar)한다. 동시에 능동적 규율로서, 국가 B 는 이자 관련 금액에 대한 공제를 부정하고, 가능하지 않을 시, 수동적 규율로서, 국가 A에서는 금액을 배당금 명목이 아닌 일반 매출 (ingreso, *income*)로 인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.

**예제 2)** 예제 1 과 같은 구조 기반, A 국가에서 부분적 면세를 추진한다고 가정을 하여 보자.

즉, A 국가에서 90% 면세하고, 나머지 10% 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여 보자. A, B 국가에서 세율은 동일하게 30%라고 하였을 때, B 국가에서 매출이 \$ 100 이라고 계산을 하여 보자. 그리고, B Co. 는 \$100 중에서 \$ 50 을 A Co. 에게 이자 명목으로 전송하였다.

- B 국가 소재 B Co. 차원: 매출 \$ 100 - 이자 지출 (공제) \$ 50 = \$ 50 소득 발생하고, 해당 소득에 30% 세율 부가 시, 세금 \$ 15, 순 소득 \$35 발생
- A 국가 소재 A Co. 차원: B Co 으로부터 받은 \$ 50 을 배당금으로 해석. 90% 면세 받음으로 10% 해당 \$ 5 에 대해서만 과세함으로써, 세금 \$ 1.5, 순 소득 \$ 48.5 발생.

앞의 설명은 밑에 테이블을 놓고 보면 세무상 혜택 관련 차이점을 뚜렷하게 확인 할 수 있다.....